

'소외된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9월 15일~16일

'사랑의 친구들' 10번째 바자가 열립니다

IMF 이후 우리 사회의 늘어만 가는 결식아동들의 딱한 처지를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 98년 서둘러 출발한 사단법인 '사랑의 친구들' 이 올해로 창립 9주년을 맞았습니다.

창립 직후부터 바자를 열어 이들을 도운 것이 벌써 10번째.

올해도 변함없이, 다가오는 9월 15일, 16일 이틀 동안

이화여고 류관순기념관과 그 앞뜰에서 바자를 엽니다.

바자회의 수입금은 빈곤지역의 공부방을 지원하는데 전액 사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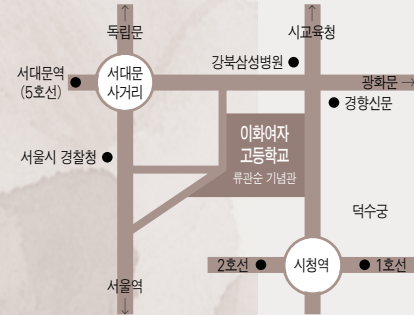
알뜰구매와 빈곤어린이돕기를 함께

- * 장호원 복숭아, 영광굴비와 모시잎떡, 신안 미역과 다시마, 소금 해남 밤고구마, 고창 고추 등 질 좋은 지방 특산품이 가득!
- * 외국에 사는 한국 어머니들이 현지에서 구입한 세계적 명품을 놀랄만한 가격으로!
- * 다양한 건강식품으로 웰빙의 식생활을!
- * 청담동 일급 디자이너의 의류, 주방용품, 가전 및 생필품 등을 최고 60~70% 쉼 가격으로

'2007년 빈곤아동돕기 사랑나누기 바자 한마당'

* 일시 : 2007. 9. 15(토)~16(일), 오전 10시~오후 5시

* 장소 : 서울 정동 이화여고 류관순 기념관 및 앞뜰



발행인 : 김성수
서울 종로구 육인동 47-483

Tel : (02)734-4945-7
Fax : (02)734-4948
E-mail : folove831@korea.com
Homepage : www.friends.or.kr

사랑의 친구들

Friends of Love

2007년 8월 / 통권 제 25 호



내년이면 10년! 어려운 어린이 돕는 일은 계속돼야...

안윤정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사) '사랑의 친구들' 과 힘을 합쳐 결식아동을 돕기 위한 '사랑 나누기 바자' 를 해온 것이 올해로 10번째가 됩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려운 처지의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주로 여성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여성들의 힘으로 운영되어 온 단체인 까닭에 더욱 감회가 특별합니다.

1998년, IMF 사태로 인해 접시를 굶는 아이들이 급증했습니다. 당시 퍼스트 레이디였던 이희호 여사님이 어린이들에게 밥부터 먹이자며 어머니들의 힘을 모아 '사랑의 친구들' 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협회인 한국여성경제인협회와 함께 하자는 제안이 왔고, 우리도 기꺼이 참여했습니다.

장영신, 신수연, 이영숙, 정명금 회장을 거쳐 오늘날 제가 회장을 맡게 되기까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원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생산품들을 기증했고, 바자에 출품하기 마땅치 않은 업종을 운영하는 회원들은 성의껏 적은 액수라도 후원금과 행운권 구입 등으로 참여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가진 것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고, 특히 한국의 장래를 책임져야 할 어린이들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라는 제목의 농촌운동가의 저서도 있지만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나 혼자만 잘 살수는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유기적인 관계 속에 서로 연관을 맺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한 예로 내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불행한 사람, 슬픈 사람,

세상과 사회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 중 누군가가 불특정 다수를 향해 증오의 화살을 던졌을 때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 그 화살을 맞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능하다면 그렇게 사회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형편이 어려운 어린이들이 정상적인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 '사랑의 친구들' 바자에는 이러한 생각으로 처음부터 함께 해왔기에 그곳엔 가면 우리 회원들이 기증한 물품들로 꾸며진 유명 코너들이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주)양스도 해마다 의류를 기증해왔고 디자이너 김선자, 이영희 씨도 다양한 의류를 기증했습니다. 최금주 씨의 휴지통과 쟁반 등도 유명하고, 보우실업의 수출용 액세서리, 안현정 씨의 천연비누, 밀알식품과 명보식품의 전통식품, 대한상사의 그릇들, 도술 인테리어의 스타다리미 등...

코모도호텔 이영숙 회장님은 호텔 숙박권을 행운권 상품으로 내셨고, 호텔에서 쓰는 참기름을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빠졌지만, 삼미식품의 어간장은 오랫동안 바자의 인기식품이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협동이 앞으로 5년, 10년, 20년 뒤에 이 땅의 어려운 형편의 어린이들이 없어지는 날까지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곧 다가오는 9월15일과 16일의 '사랑나누기 바자 한마당' 이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7월20일부터 열렸던 글로벌어린이재단 총회 참석하고 - 나라사랑어머니회, 글로벌어린이재단으로 이름 바꿔 2008년 10주년 총회는 워싱턴 DC에서



시카고 베스트 웨스턴 호텔에서 열린 2007년 총회.

글로벌어린이재단(총회장 심정렬)의 2007년 제9차 정기총회가 지난 7월20일부터 22일까지, 미국 미시간주 시카고 근교에 있는 베스트 웨스턴 호텔에서 열렸다. 방숙자 이사장을 비롯하여 미국의 동북부, 중부, 서부 등 10여개 지부의 대표와 한국의 민병옥 지회장 등 50여명이 참가한 이번 총회에서는 정관변경과 내년에 맞을 창립 10주년 행사 준비 등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글로벌어린이재단은 종래의 '나라사랑어머니회'를 개명한 것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 원래의 영어이름인 Global Children Foundation으로 하자는 등 논의가 있었으나, 이번에 정관을 고치면서 확정했다.

글로벌어린이재단은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여성들이 IMF 사태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끼니도 제대로 때우지 못하는 조국의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1998년 8월 워싱턴 DC에서 구성한 단체다. 이어 한국에서도 '사랑의 친구들'이 창립되어 자매단체로 결식아동들을 돕는 일을 함께 해온 것이다.

2006년 글로벌어린이재단은 '사랑의 친구들'의 바자에 참여하여 판매한 총액 72,000,000원과 지방 공부방 어린이 서울 초청 비용 5,000달러를 지원했

다. 2007년에는 총예산 342,800달러의 사업계획을 세웠고, 그중 '사랑의 친구들'과 관련해서는 70,000달러를 배정했다. 올해 총회에서는 2008년을 위한 총 315,700달러의 예산안을 승인했는데 그중에 '사랑의 친구들'과 관련한 지원액은 총 65,000달러다.

글로벌어린이재단의 2008년 사업계획 중에는 몽골의 공부방 돕기, 수단, 짐바브웨, 캄보디아의 나병 미감아 돕기, 아프리카 말라위의 염소구입 및 의양간 건설비, 열린문 복음선교회 탈북 어린이돕기 등 전세계를 향한 다양한 불우 어린이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포함되어 있다. 방숙자 이사장은 앞으로 탈북 어린이를 돕기 위한 다양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중의 하나가 북한과 접근하기 쉬운 몽골에 숙식이 가능한 한국의 공부방과 같은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라고 했다.

7월21일, 오후 7시 시카고 시내 시얼스 타워 6층 메트로폴리탄 클럽에서 열린 제9차 기금 모금만찬에서는 방숙자 이사장, 심정렬 총회장, 서진화 준비위원장의 인사에 이어 이인호 전 러시아대사(현 명지대 석좌교수)가 기조연설을 했다. 이인호 교수는 고국을 떠나있으면 모두가 애국자가 되지만 그것을 실제로 몸으로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 글로벌어린이재단 회원들은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 뿐 아니라 삶의 참된 의미, 어린이들의 소중함에 관해 남다른 인식을 가진 분들이라고 치하했다.

한편 내년 창립 10주년을 맞는 글로벌어린이재단은 1998년 창립 당시의 그 열렬했던 마음을 되살려 또 하나의 출발점으로 삼자는 뜻에서 창립장소인 워싱턴 DC에서 기념식과 총회를 열기로 했다.

박금옥 ('사랑의 친구들' 사무총장)

한국미스터피자와 함께 하는 2007 사랑의 피자 캠페인 고소하고 담백한 피자! 다함께 즐겨요

'사랑의 친구들'이 한국미스터피자(사장 황문구)와 함께 하는 '사랑의 피자 캠페인'은 전국의 미스터피자 매장과 본사에서 조성된 기금으로 공부방에 피자를 배달하고 쿠폰을 이용해 어린이들이 직접 매장을 찾아 피자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2005년부터 시작된 이 캠페인으로 올 상반기 동안에만 5,369편의 피자를 335개 공부방 어린이들에게 나누었다. 한국미스터피자는 피자 외에도 매달 100명의 어린이에게 '사랑의 장학금'도 전달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무료쿠폰 사용보다는 공부방에 직접 피자를 배달하는 쪽으로 '사랑의 피자 캠페인'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셀라신나는집의 무더위 즐기!

여름캠프 마지막날~ 울동배우기와 장기자랑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기다려온 피자파티로 즐거운 축제의 밤을 보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의 시간을 만들어주신 미스터피자와 사랑의 친구들에 감사드립니다^^
지역아동센터 셀라신나는집 김선미 (경남 김해시 내동)

딩동~ 피자 배달 왔습니다~

태인지역아동센터입니다.
쫄깃쫄깃, 담백한 베이컨감자피자 선물을 받고 33인의 태인 꾸러기들의 눈, 코, 입 모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기쁨을 선사해 주신 '사랑의 친구들'과 '미스터 피자'에 감사드립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태인공부방 안소영 (전남 광양시 태안동)

미스터 피자 사장님은 너무 친절해요!

날씨도 좋고 운동도 할 겸해서 청주 중앙점 미스터피자까지 걸어가기로했습니다. 모처럼의 나들이에 아이들의 발걸음은 신나기 그지없었지요. 산넘고 물 건너 볼거리도 많았구요~.
맛있는 피자에 콜라, 그리고 샐러드를 정신했어 먹고 나니 이젠 아이들이 피자 만드는 원도우에 붙어서 신기하게 바라봅니다. 밀가루 반죽이 위로 치솟을라치면 아이들의 함성과 박수 소리가 우렁차게 들렸습니다. 시끄러웠을 텐데도 미스터피자 사장님께서서는 환한 미소와 자상하신 배려로 저희들을 또한번 감동시켰습니다. 느끼하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맛난 피자는 처음 먹어본다고 선생님들은 물론 아이들마저도 이야기 합니다.
이렇게 즐거운 시간과 아이들과의 가까워짐을 느끼게 해준 사랑의 친구들께 감사드리며 한국미스터피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남부지역아동센터 유무순(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1동)

선생님, 정말 맛있어요! 최고예요!

어제 우리 공부방에서 5월을 마지막 보내는 행복한 파티가 있었습니다. 바쁘기만 하던 5월의 끝무렵에 아이들과 잠시나마 팀워크를 다지자고 갖게 된 행복파티.
요즘엔 피자집이 없는 동네가 없을 만큼 널린 게 피자집이지만, 역시 미스터피자에 남다른 담백함과 고소함이 물씬 풍겨나더군요. 아마 그 피자에 담긴 사랑의 뜻 때문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해마다 여러 차례 아이들에게 최고의 피자맛을 선사해준 미스터피자와, '사랑의 친구들' 모두모두 고맙습니다.
덕분에 정신없이 보낼 뻔 했던 5월의 마지막 월요일 밤에 푸짐한 피자파티와 아이들의 신나는 오카리나 연주며 장기자랑으로 어우러진 피자파티가 가난과 소외로 그늘졌던 아이들에게 잊혀지지 않을 추억으로 소중하게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시금 감사를 드리며...
달성지역아동센터 이용희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기분좋은 선물을 주고받는 방법에 관한 연구

희망의집 공부방 친구들이 사랑의 피자 무료쿠폰으로 오늘 피자파티를 했습니다. 한학기를 마감하며 서로의 수고를 칭찬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피자를 원껏 먹으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무척 감사했습니다. 이런 즐거움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피자를 선물로 받았으니 기분 좋지요? 그럼 너희도 꼭 갚아야 해!!" "어떻게요?"
"너희가 매일 누군가에게 착한일 한가지씩 하면 되지. 남을 기쁘게 하는 일이 곧 선물이지."
그래서 이번 방학에는 서로를 기쁘게 하려는 바람이 일어날 거예요. 생각만 해도 기분좋은 일이죠?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표합니다.
희망의집 공부방 김정숙 (서울 강북구 미아7동)

미래를 여는 영어교실 / 논술교실 공부방에 자원봉사자, 책, 테이프도 지원



자원봉사 영어선생님과 즐거운 영어교실 (은천지역아동센터).

■ 미래를 여는 영어교실

‘사랑의 친구들’은 공부방 어린이들이 영어공부에 자신감을 가지고 영어와 친숙해질 수 있도록 ‘미래를 여는 영어교실’을 2007년 3월부터 시작했다. 사교육비 중에서도 가장 비싼 것이 영어학원비로, 교육 불균형이 가장 심한 것도 영어과목. 조기 영어교육이 일반화되는 가운데 따로 학원을 다닐 수 없거나 사교육의 기회가 적은 공부방 어린이들에게 영어는 극복하기 어려운 장벽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 영어를 배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1주일에 1~2회 공부방을 직접 방문해 지도한다. 이는 공부방 어린이들이 영어에 대한 관심과 동기를 일으키는 기회가 되어 미래를 열어 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랑의 친구들’에서는 상반기 동안 두 번의 오리엔테이션과 공부방 교사와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초등학생의 흥미를 유발하는 영어교육 방법에 대해 전문가를 초청해 워크숍을 열었다. 또한 영어교실에 참여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영어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지속할 수 있도록 후속 프로그램도 병행하기로 하고 지난 8월 13일 1차 지원대상 공부방 어린이 34명에게 수유 영어마을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미래를 여는 영어교실’은 미래회(회장 노소영)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이화여대에서 학생자원봉사자 일부를, ‘사랑의 친구들’에서 ‘영어교실’ 운영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미래를 여는 영어교실

1차 기간 : 2007년 3월 ~ 6월
대상 : 8개 공부방 76명

꿈터공부방 · 북부열린학교 · 은천지역아동센터 · 파랑새지역아동센터 · 구로파랑새나눔터공부방 · 산돌지역아동센터 · 새날지역아동센터 · 하늘그림지역아동센터

2차 기간 : 2007년 7월 ~ 8월
대상 : 25개 공부방 216명

구로파랑새나눔터공부방 · 기쁨지역아동센터 · 꿈마을지역아동센터 · 나눔지역아동센터 · 다음세대지역아동센터 · 독립문교회공부방 · 또래모아지역아동센터 · 마리아지역아동센터 · 모시래지역아동센터 · 북부열린교실 · 삼정지역아동센터 · 새날지역아동센터 · 아이미래공부방 · 월곡지역아동센터 · 월곡청소년센터방과후교실 · 웅상지역아동센터 · 은천지역아동센터 · 의정부나눔공부방 · 장수꿈나무지역아동센터 · 조이스터디지역아동센터 · 천음방과후교실 · 푸른지역아동센터 · 파랑새지역아동센터 · 하늘그림지역아동센터 · 하늘꿈지역아동센터

■ 미래를 여는 논술교실



5월 28일 ‘미래를 여는 논술교실’ 자원봉사자와 공부방 교사가 모인 오리엔테이션.

한편 4월부터는 ‘미래를 여는 논술교실’을 운영하기로 하고, 서울지역 5개 공부방을 우선 선정해 시범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가정환경상 독서와 논술은 공부방 어린이들에게 가장 취약한 과목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공부방에서

는 재정과 인력의 문제로 외부 전문교사 초빙은 불가능하고 자원봉사자의 경우 비전문성과 불안정성으로 논술교육이 어렵다. ‘미래를 여는 논술교실’은 ‘사랑의 친구들’이 전체 기획과 진행을 맡고, 무지개 논술 아카데미의 현직 교사가 교육과 교재를 제공하여 진행된다. 이는 공부방에 질 높은 논술교육을 제공하는 시범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를 여는 논술교실

1차 기간 : 2007년 6월 ~ 8월
대상 : 5개 공부방 57명

조이스터디지역아동센터 · 분도공부방 · 밝은지역아동센터 · 새날지역아동센터 · 돌산아동청소년센터 판

자원봉사를 하면서

영어, 포기하지 않기 그리고 즐거운 것으로 만들기

누구를 가르쳐 본 게 이번이 처음이어서 스스로도 많이 미숙했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을 해주지 못했던 게 미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래도 수업 횟수가 늘어날수록 아이들과 친해져서 처음보다는 더 많이 아이들의 특성이나 공부방법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업의 후반부에는 변화를 줘서 13명 정도의 아이들을 두 반으로 나누어 한시간씩만 수업했는데, 확실히 그전보다는 수업분위기가 좋아지고 아이들도 잘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한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라 어떤 책은 진도를 다 끝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복습이 중요한 것 같아 저는 수업 때 그림을 보고 항상 그 전 시간에 배운 문장이나 단어를 이용해서 질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맞추는 친구들에게는 사탕 같은 것을 선물로 주었는데 이것이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매우 효과적이었고, 좀 소극적인 아이들은 그냥 강제로라도 물어보고 대답을 이끌어내서 모두가 선물을 받도록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단어를 쉽게 잘 외우고 또 잘 까먹지도 않

는 것 같았지만, 단어를 아직 읽지 못하고 문법도 모르다보니 문장을 공부할 때는 많이 어려워하는 듯 했습니다. 애들에게 물어보니 5학년 친구들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꽤 긴 영어 대화 전체를 그냥 외우도록 시키는 것 같았고 교과서에도 읽거나 쓰기는 나중 문제인 것으로 보이긴 했습니다. 일단 초등학생 아이들에게는 영어에 대한 흥미를 가지도록 해서 앞으로 영어 공부하는 걸 즐거워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 능력 이상의 것은 요구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선행학습을 좀 해주면 좋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긴 했습니다.

‘사랑의 친구들’에서 준비한 워크숍을 통해 좀 배우고 갔으면 더 좋은 수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 아쉽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수업인데 정말 최선을 다해야겠어요. 그리고 정말 우리 이쁜 아이들이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미래를 여는 영어교실로 인해 많은 친구들이 즐겁게 영어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정연 (이화여대 영어영문학과 4)

공부방 교사들을 위한 사전캠프

워크숍과 체험 통해 문화예술교육 모델 개발 강원도 청태산 자연휴양림에서

연합캠프 공모에서 선정된 9개 연합 공부방 교사들과 공부방에서 캠프를 준비하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열린 사전캠프 교육이 지난 6월 19일~22일 3박 4일 동안 강원도 횡성군 청태산 자연휴양림에서 있었다.

사전캠프에 앞서서 공모에서 선정된 9개 캠프 연

합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인 캠프를 기원하며 캠프 지원 약정서를 전달했다.

청소년과 놀이문화연구소의 전국재, 우영숙 박사의 진행으로 3박 4일간 열린 사전캠프는 워크숍과 교사들이 직접 체험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모델을 개발해 보는 시간들로 채워졌다.



공부방 교사들이 직접 놀이를 하면서 캠프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2007 빈곤지역 아동 연합캠프

68개 공부방 1,525명 어린이 캠프 참여 겨울캠프 1곳 포함, 9개 연합캠프 지원

'사랑의 친구들'은 2004년부터 빈곤지역의 어린이를 위한 캠프 프로그램으로 5개 이상의 공부방이 연합해 캠프효율을 높이는 연합캠프를 공모해 왔다. 올해도 여름과 겨울방학 동안 진행할 캠프를 공모해, 서류심사와 실사를 거쳐 총 9개 연합체를 선정했다. 겨울에 열릴 1개 연합체를 제외한 8개 연합캠프가 여름방학 동안 진행됐다.

캠프는 가정으로부터 따뜻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학교에서는 따돌림과 학습능력 저하로 어떤 집단에도 잘 적응하지 못하는 빈곤지역 실직, 결손가정의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제공한다. 연합캠프는 어린이들에게는 공동체 의식과 집단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개별 공부방에게는 많은 인력과 재정이 필요한 캠프준비의 어려움을 줄이고 연합을 통해 혼자 힘으로는 진행하기 힘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가능하게 해준다. 또한 공부방과 공부방 간의 다양한 협조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에도 연합캠프는 의미가 있다. 공부방 교사들의 협조와 네트워크 구성에도 기여한다.

캠프를 다녀와서

제주도를 다녀와서 이것저것 많은 감상과 공부를 하였습니다. 사회시간에 제주도에 관해 공부를 했는데 직접 제주도까지 가서 체험을 해서 무척 기분이 좋았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환하게 웃어서 저도 원장 선생님도 기분이 무척 좋았습니다. 저희에게 이러한 웃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도에 현무암이 많은 건 알고 있었지만 바닥까지 현무암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제주도 천제연 폭포에 가서 그것도 알고, 새가 있는 정원, 쌍용동굴, 협계동굴 등 여러 동굴도 체험해보고, 제주도의 말(승마) 체험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에 가서 성도 쌓고, 바닷물에 빠지고, 미역도 맛보고, 소금물도 여러 가지 맛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말 멋있고 아름다웠습니다. 마지막 비행기를 타고 올 땐 새로운 경험과 자연을 알 수 있어 정말 기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도정 (동인천여자중학교 1)

단체명	지역	참여기관	인원	사업명
강북구공부방협의회	서울	5	120	눈, 자연을 통해 하나 되는 강북구 공부방 연합캠프
부천시지역아동센터공부방연합회	경기	8	280	Fun Fun 신나는 캠프!
인천지역아동센터공부방연합회	인천	12	250	2007년 공부방 아이들과 함께 하는 놀이문화캠프
전남야학연합회	전남	9	120	2007 전남야학연합회 여름캠프 '함께 만드는 우리 세상'
여주지역아동센터연합회 8개 공부방	경기	8	205	별뿔별과 함께 하는 자연캠프
강릉지역아동센터연합회	강원	9	250	강릉아이들의 여름축제 'let's go together'
대덕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	대전	5	80	한국의 전통문화를 찾아서
작은아동센터	인천	6	80	날아라 제주도까지
중앙희망꾸러기네트워크	서울	6	140	사랑의 친구들과 함께 하는 희망꾸러기캠프

'사랑의 친구들', 글로벌어린이재단 지원 2007 공부방 연합캠프 신나게, 즐겁게 함께 어울려요

중랑희망꾸러기네트워크

'사랑의 친구들' 과 함께 하는 '희망꾸러기 캠프'
7월 24일~26일 ▶강원도 철원군 서면 성소수련관

- ★ 다양한 환경친화적 체험을 경험하여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고 단체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캠프.
- ★ 참여공부방: 우리아이희망, 푸른꿈, 재미, 참이랑, 창대, 참사람공부방



대덕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

'은비, 까비의 함께 숨쉬는 전통문화의 얼을 찾아 떠나는 여행'
7월 30일~8월1일 ▶경기도 여주군 해바라기 마을

- ★ 외국문화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전통문화 체험의 장을 열어줌으로써 우리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마음을 풍요롭게하는 캠프.
- ★ 참여공부방: 예담, 나눔, 법동, 솔로몬, 예수사랑지역아동센터



강릉지역빈곤아동지원단체모임

강릉아이들의 여름축제 'Let's go together'
8월 7일~10일 ▶강원도 연곡 소금강 자연학습체험관

- ★ 수공예품만들기, 생태계탐구활동, 환경지킴이 활동 등 평소 경험하기 어려운 다양한 활동들을 넓고 푸른 자연속에서 맘껏 즐기는 아이들의 신나는 축제.
- ★ 참여공부방: 마리아, 청소년, 푸른이, 강릉시청여성복지과, 들꽃사랑회, 꽃물문화학교



여주지역아동센터연합회

'별뚱별과 함께 하는 자연캠프'
8월 2일~4일 ▶경기도 여주군 청소년수련원

- ★ 책으로만 보던 별자리를 직접 관찰하고 흥미있는 과학실험을 통해 자연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이해해보는 지식의 열매가 맺길, 마음의 키가 쑥!쑥! 자라나는 캠프.
- ★ 참여공부방: 구세군여주, 여주, 여주중앙, 가남, 반석, 즐거운, 산북, 이포중앙공부방



전남야학연합회

'함께 만드는 우리 세상'
8월 21일~23일 ▶전북 완주 청정인성수련원

- ★ 승마, 수상놀이 등 특별한 종합 테마레포츠를 경험하고 차분한 공간에서 '나'를 스스로 돌아보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속의 나', '나의 미래, 꿈' 등을 생각하는 자아발전 캠프.
- ★ 참여공부방: 곡동, 금당, 무선, 생목, 소라, 여천, 인제, 조례, 지리산공부방



인천지역아동센터공부방연합회

'2007년 공부방 아이들과 함께 하는 놀이문화캠프'
8월 1일~3일 ▶충북 제천 한국전통문화체험학교

- ★ 자연 속에서 공동체 놀이를 통해 문화적 소외감을 줄이고, 자아감 고취와 상호관계 형성을 도모하는 캠프.
- ★ 참여공부방: 부평, 삼산해오름, 서로사랑, 오순도순, 햇살, 민들레, 숲숲, 송현샘, 새벽, 간석, 새봄공부방, 해와 달



부천시지역아동센터공부방연합회

'FUN FUN 신나는 캠프!'
8월 15일~17일 ▶강원도 증내 유스호텔

- ★ 게임, 수영대회 등을 통해 어린이들의 끼를 발산하고, 단체활동을 통한 학습을 경험하는 캠프
- ★ 참여공부방: 오순도순, 지구촌, 낮은울타리, 부천, 신광, 해오름, 동산, 살롬, 도담



작은아동센터

'날아라 제주도까지'
8월 15일~17일 ▶제주도

- ★ 비행기 타보는 것이 소원인 아이들. 제주도 탐사를 통해 탐라유적과 자연을 접하며 순수한 꿈과 희망을 세우는 캠프.
- ★ 참여공부방: 선민아이들세상, 하늘씨앗, 남부아동센터, 푸른솔생활학교, 화도마리



강북구공부방협의회

'눈, 자연을 통해 하나 되는 강북구 공부방 연합캠프'
2008년 1월 17일~18일 예정 ▶강원도 철원군 서면 성소수련관

- ★ 겨울체험, 자연체험, 공동체놀이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과 양보를 배우는 캠프.
- ★ 참여공부방: 북부열린학교, 구세군탐구학습교실, 동글동글, 사랑의, 돌산

2007 지방공부방 어린이 서울초청 행사

강원, 충북 어린이들 풍성한 문화체험으로 2박 3일



'사랑의 친구들' 김성수 회장이 어린이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글로벌어린이재단이 후원하는 2007 지방어린이 서울초청 행사가 올해로 8번째, 4월 25일~27일 진행됐다.

충북 제천과 강원도 고성, 속초, 인제 지역 5개 공부방 어린이와 교사 86명이 서울나들이에 나서 2박 3일 동안 다양한 볼거리와 새로운 체험에 도전했다.

서울에 도착한 어린이들은 경복궁의 왕궁수문장 교대식 관람을 시작으로 극단 사다리의 어린이뮤지컬 '여우야 뭐하니?' 를 본 후 환영식과 레크리에이션으로 첫날밤을 보냈다. 이튿날에는 (주)CJ가 후원하는 베이킹 프로그램에 참여해 케이크와 쿠키를 직접

만들어보고, N서울타워에 올라 한눈에 들어오는 서울의 전경을 감상한 후 국립중앙박물관과 여의도 한강둔치에서 시간을 보냈다. 저녁시간은 (주)한국미스터피자가 후원한 푸짐한 피자파티로 마무리. 마지막날은 어린이들의 기대가 가장 컸던 에버랜드 방문으로 2박 3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지방공부방 어린이 서울초청 행사'는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방 빈곤지역의 공부방 어린이, 가정환경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가족끼리의 서울여행이 어려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서울 방문 기회를 제공한다. 섬이나 산간지역의 아동들에게 여행기회를 주어 텔레비전을 통해서만 볼 수 있었던 문화시설을 직접 이용해 보게 함으로써 문화적 감수성과 친화력을 형성하게 한다. 이 프로그램 운영자와 관련 기업, 단체의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미래에 대한 비전을 함께 갖게 한다.

글로벌어린이재단이 어린이들의 서울방문을 위해 해마다 5,000달러의 후원금을 지원해왔고, 올해에는 (주)CJ, (주)한국미스터피자, (주)모나미, 극단 사다리, 경북공관리사무소가 어린이들의 다양한 문화체험을 후원했다.



N서울타워에서.



뮤지컬을 관람한 후 배우들과 기념촬영.

2007년 사업설명회 및 교사워크샵 열려

'청소년 자아성장 훈련에 관한 이해' 를 주제로

2007년 사업계획 설명회 및 2006년 사업 평가회가 지난 3월 28일~30일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열렸다. '사랑의 친구들'이 2007년 한해 동안 펼칠 지속 사업과 신규사업을 소개하여 사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2006년 진행된 사업에 대한 파트너 단체들의 평가를 들어보는 기회였다.

또 지속적인 사업진행을 위한 개선책을 모색하고 아동상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부방 선생님들에게 아동상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교사 워크샵도 아울러 진행했다.

공부방 교사들을 위한 워크샵은 현실요법과 자아성장훈련을 주제로 진행됐다. 자아성장 훈련은 '사랑의 친구들'이 공부방에 지원하고 있는 청소년 심리상담 '우리가 만드는 행복한 세상'의 주요 내용이다.

워크샵을 통해 '우리가 만드는 행복한 세상'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이론과 실험, 활동 등 다양한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짰다. 또한 의사소통의 가장

기본적인 기술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도 가짐으로써 학생들과의 관계를 증진하고 문제해결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워크샵에 참여한 공부방 교사들은 청소년 자아성장 프로그램의 이해를 통해 현장에서 심리상담가와 청소년 사이에 가교 역할을 좀 더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의사소통 기술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은 학생들과의 관계를 증진하고 문제해결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 교사워크샵에는 빈곤지역 공부방 교사 34명이 참여했다.



교사 워크샵은 현실요법과 자아성장 훈련을 주제로 열렸다.

2007년 정기이사회, 정기총회 열려 지원사업 심층화와 창립 10주년 기념사업 준비하기로

(사) '사랑의 친구들'은 2월 27일 우당기념관에서 임원 및 회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도 정기이사회와 정기총회를 잇달아 열고 2007년의 사업방향을 정했다. '사랑의 친구들'은 공부방 등 빈곤아동을 위한 기업과 단체와의 협력사업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한편 2008년 본회 창립 10주년을 준비하기 위해 기념사업 및 10주년 자료집 발간 등을 위한 기념사업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에는 공부방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래를 여는 영어교실', '미래를 여는 논술교실' 등을 새로 시작하기로 했다.

8월 23일 오후 1시부터는 2007년 두번째 이사회가 '사랑의 친구들' 회의실에서 열려 9월 15일, 16일 열리는 '사랑의 바자 한마당'의 진행사항 점검하고 올해 하반기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2007 사랑의 떡국나누기

설날 아침, 떡국 한그릇으로 나누는 사랑 2,500가정에 바구니 전달

'2007 사랑의 떡국 나누기' 행사가 지난 2월 15일 광화문 정동제일교회에서 이희호 고문과 1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저소득가정, 부모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들이 사는 가정, 혼자 사는 노인 등 명절이 더 춥고 쓸쓸한 이들의 가정에 배달된 떡국바구니에는 떡국떡 1kg들이 3봉지, 국거리용 양지머리 쇠고기 1.2kg(2근), 완도산 멸치 500g외에 (주) 대상이 후원한 국물용 감치미가 들어가 설날 아침 따뜻한 떡국으로 온기를 나눌 수 있도록 했다.

행사에 모금된 금액은 모두 9천6백여 만원으로 애초 목표보다 200 바구니를 더 만들어 모두 2,500가정에 사랑의 떡국 바구니를 전달했다. 올해의 떡국 나누기 행사는 외환은행의 나눔재단이 1,000구좌의 떡국 바구니 후원금을 기탁하고 로버트 펠런 이사장

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해 떡국 바구니 포장에서부터 전달까지 '사랑의 친구들'과 함께 하는 훈훈한 행사가 됐다. 뉴욕생명에서도 후원금을 기부하고 임직원이 자원봉사로 참여해 사랑나누기에 동참했다.

1998년에 처음으로 시작된 사랑의 떡국나누기 행사는 올해로 9번째, 그동안 떡국바구니를 전달받은 가정이 총 32,457가정, 액수로는 973,710,000원에 이른다.

한편 '사랑의 친구들' 고문인 이희호 여사는 떡국 바구니 포장이 끝마친 자원봉사자들과 점심식사를 같이한 후 경기도 고양시의 천사의 집과 벽제 희망양로원을 방문해 떡국바구니를 전달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인사했다.



떡국 바구니를 포장하고 있는 '사랑의 친구들' 이희호 고문과 외환은행 나눔재단 펠런 이사장.



떡국 바구니를 포장하고 있는 '사랑의 친구들' 이희호 고문과 외환은행 나눔재단 펠런 이사장.

'사랑의 떡국나누기' 수혜자

<독거노인 및 저소득가정>

서 울 : 강남구, 강북구, 강서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마포구, 송파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영등포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경 기 : 고양, 부천, 성남, 양주, 오산, 평택, 하남, 과천, 남양주, 광명, 구리
지 방 : 충북, 광주, 전남 신안, 전북 완주

<조손가정이 있는 지역이동센터>

서 울 : 은성지하철, 연세, 은천, 북음자리, 제미, 조이스터디, 밝은, 사랑의, 한누리, 햇살
인 천 : 화도마리, 해님, 주안랜덤트, 민들레
경 기 : 벨엘, 만인, 여개동무, 아람, 하이탑, 우리, 햇빛학교, 초지마을, 서평택, 가나안, 태전, 동안, 달팽이, 한울, 도담, 지구촌
경 남 : 한빛, 밀알, 영오, 대성, 예술신나는
전 남 : 여수열린, 동광양평화, 옥곡, 태인, 주봉
전 북 : 꿈터
충 남 : 미문
대 구 : 예따라기

<기타>

강화우리마을, 두레방, 보금자리센터, 라파엘의집, 살론의 집, 세튼해바라기집, 수색천사의집, 벽제희망양로원, 신용산보안복지센터, 보사노인복지센터, 송파재가복지센터, 우리사랑가정봉사원파견센터, 정동제일교회 외국인 노동자들 등

설날에도 산타가

저흰 한 끼로 떡을 주실 줄 알고 따로 참치캔이라도 준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차 안의 보자기를 보고 놀라웠는데 열어보니 또 한 번 놀라 교사들은 함성과 "고맙다, 고맙다"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고기가 상할까 봐 어두워지기 전에 돌려야겠다는 생각에 열심히, 신나게, 행복하게 그렇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직접 만나 본 가정의 형편들은 참으로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편지에 쓰여진 기부자의 이름을 한 사람씩 보며 아이들에게 전합니다. "이거 너희들 참 예쁘게 잘 자라주고 잘 웃는 모습이 예뻐서 이렇게 보내 주신거야. 다 몰래 보고 가셨거든" 이라고요.

저흰 예쁜 엽서를 벽에 붙여 장식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은천지역이동센터 교사 정여정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강다혜, 강민혜, 강병철, 강순희, 강인자, 강재근, 강태형, 강혜경, 강혜숙, 강홍준, 강환규, 고덕천, 고정순, 고희숙, 공영자, 박보영, 박선례, 구귀남, 구춘모, 국제에스타(주), 권상희, 권애자, 권용자, 권향희, 권희선, 김의효재단, 김정희, 김경수, 김경영, 김경자, 김경표, 김경희, 김경희, 김나영, 김나아, 김남숙, 김남중, 김덕희, 김동령, 김동희, 김동철, 김말녀, 김매자, 김명희, 김미경, 김미령, 김미정, 김민수, 김민정, 김복순, 김봉숙, 김사라, 김상섭, 김상수, 김선경, 김선희, 김성미, 김성배, 김성숙, 김세원, 김세은, 김소영, 김숙자, 김순옥, 김순자, 김시중, 김애진, 김양림, 김영규, 김영남, 김영숙, 김영옥, 김영중, 김영직, 김영진, 김영철, 김영혜, 김옥한, 김옥희, 김용남, 김 옥, 김유경, 김윤옥, 김윤희, 김은숙, 김은채, 김은혜, 김이경, 김인규, 김인숙, 김재숙, 김재영, 김정미, 김정수, 김정애, 김정연, 김중수, 김중숙, 김주원, 김진수, 김진아, 김진영, 김진희, 김창실, 김정경, 김춘례, 김태년, 김태연, 김태은, 김평숙, 김하자, 김해준, 김현중, 김현주, 김형숙, 김혜수, 김혜순, 김혜원, 김화자, 김화정, 김효섭, 김훈자, 김희순, 김희진, 꽃누리미, 나은실, 남정수, 노명자, 노평자, 노현숙, 노현자, 노희성, 뉴욕생명보험(주), 대림산업(주), 류민자, 명원문화재단, 모숙현, 문경란, 문봉선, 문화태, 민웅기, 민필식, 바다출판사, 박병근, 박영숙, 박용옥, 박용진, 박유경, 박은경, 박은성, 박은우, 박재호, 박정숙, 박정애, 박정자, 박준규, 박준수, 박진숙, 박천민, 박춘자, 박태남, 박필규, 박희준, 배성기, 배정은, 백금차, 백필순, (사)여성자원금고, 서립규, 서연호, 서정혜, 서정희, 서진호, 서태숙, 서현주, 성인숙, 세브란스병원호스피스, 손지은, 송미숙, 송정숙, 슈퍼어신우회, 신난식, 신두림, 신문경, 신상범, 신선련, 신연숙, 신영란, 신혜연, 심미자, 심치선, 안병원, 안성자, 안승남, 안재희, 애경산업(주), 양남오, 양문선, 양영아, 양의문교회, 양창균, 양현경, 엄마리, 엄정숙, 엄혜경, 엄담교회, 오경애, 오경임, 오세강, 오수평, 오양순, 오혜순, 왕세경, 외환은행나눔재단, 우선희, 원혜미, 유석봉, 유성숙, 유승호, 유영운, 유은경, 유재옥, 윤경희, 윤길순, 유수빈, 유순미, 유순희, 윤신자, 윤여준, 윤장순, 윤혜복재단, 이경숙, 이경희, 이근순, 이금재, 이금홍, 이길진, 이길순, 이동술, 이동해, 이명경, 이명혜, 이미대, 이미란, 이민숙, 이방주, 이보은, 이상미, 이상화, 이석영, 이석형, 이성복, 이성욱, 이수연, 이순례, 이순림, 이순영, 이승자, 이승현, 이신재, 이애영, 이양준, 이에스터, 이연숙, 이연택, 이영림, 이영순, 이영아, 이영애, 이영우, 이영재, 이예재, 이윤주, 이월남, 이윤경, 이은자, 이응인, 이의진, 이지미, 이인숙, 이정옥, 이정림, 이정자, 이정화, 이정희, 이종권, 이종순, 이종욱, 이주수, 이준영, 이지현, 이진례, 이진용, 이진우, 이채운, 이춘형, 이한나, 이해동, 이혜경, 이희순, 이희우, 이희호, 임미리, 임동원, 임선순, 임시은, 임영숙, 임재철, 장명수, 장미경, 장사익, 장 상, 장순량, 장순자, 장예순, 장중옥, (재)삼성복지재단, 전군암, 전상희, 전수빈, 전숙자, 전영숙, 전인수, 정강조, 정구순, 정기선, 정기영, 정미영, 정숙자, 정신화, 정재기, 정정희, 정진심, 정태배, 정희경, 조남진, 조미애, 조숙미, 조영숙, 조영하, 조인자, 조현숙, 종이문화재단, 주수경, 주영숙, 지 순, (주)신즈디자인, (주)예술과공간, (주)젠트로, (주)종이나라, (주)컴윈, (주)크리스패션, (주)파라다이스, (주)효성, 진천건설(주), 차명희, 차영현, 채재봉, 최경순, 최근배, 최서연, 최순자, 최순희, 최영희, 최우영, 최우영, 최준옥, 최한영, 편다솔, 편인숙, 허명희, 하선주, 한건운, 한경자, 한국노바티스, 한말숙, 한수현, 한순애, 한승현, 한영숙, 한옥순, 한인애, 한일숙, 한전부녀회, 한현옥, 한혜승, 허유영, 허윤아, 허임숙, 현성학, 현창훈, 홍근표, 홍기원, 홍기훈, 홍라희, 홍명희, 홍소일, 홍진주, 홍채민, 홍채은, 홍채호, 황계영, 황선우, 황순안, 황순희, 황우권, Richard Chun, Stephen Chun 님

(사) '사랑의 친구들' 활동보고

- 〈정기총회〉 제9차(2.27)
- 〈이사회〉 제17차(2.27), 제18차(8.23)
- 〈운영위원회〉 제92차(1.18), 제93차(2.22), 제94차(3.27), 제95차(4.24), 제96차(5.29), 제97차(6.28)
- 〈기획자문위원회〉 제47차(1.11), 제48차(2.24), 제49차(4.12)

〈사랑의 간식나누기 12, 13기〉

2001년 7월부터 시작된 사랑의 간식나누기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전세계 150여 노선의 항공편에서 나오는 주스류와 간식류를 기증받아 전국의 공부방에 6개월씩 나눈다.

12기 (21개기관 선정) 1. 2 ~ 6. 27

경기 : 하성제일지역아동센터, 사랑나무공부방, 한마음지역아동센터, 벨벳무료공부방, 행복공부방

충남 : 도덕꿈이있는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굴렁쇠, 계룡사랑의지역아동센터, 사랑호크마지역아동센터

전남 : 인제지역아동센터, 생목지역아동센터, 조례지역아동센터, 금당지역아동센터, 담양지역아동센터, 봉산지역아동센터

경남 : 가야지역아동센터, 장유지역아동센터, 삼정지역아동센터

서울 : 꿈나무지역아동센터, 조이스터디지역아동센터, 좋은나무지역아동센터

13기 (19개기관선정) 2007. 7. 3 ~ 2007. 12. 31 (진행 중)

서울 : 전농방과후교실, 천용방과후교실, 포도나무지역아동센터

인천 : 남부지역아동센터, 선민아이들세상지역아동센터, 하늘씨앗지역아동센터, 행복한지역아동센터

충북 : 주덕제일지역아동센터, 주덕지역아동센터, 충주지역아동센터, 행복을꿈꾸는아동센터

경북 : 평화지역아동센터

대구 : 강북지역아동센터, 달성지역아동센터, 예타라기지역아동센터

대전 : 비래지역아동센터, 예담지역아동센터

경기 : 새하늘공부방, 열매맺는공부방

〈2007 사랑의 떡국나누기〉

- 2006. 11. 16 1차 준비위원회의
- 12. 14 2차 준비위원회
- 2007. 1. 8 3차 준비위원회
- 2. 1 4차 준비위원회의
- 2. 8 5차 준비위원회의
- 2. 14 '2007 사랑의 떡국나누기- 2,500바구니 전달
- 2. 14 이희호 고문 주한몽골한글학교 (모자, 장갑 40세트, 외플 6box), 천사의 집 (모자, 장갑 50세트), 희망마을 양로 요양원 방문 및 물품전달

〈미스터피자와 함께 하는 '사랑의 피자 캠페인'〉



주안랜턴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이 인하대점에서 흥겨운 피자파티를 가졌다.

- 3. 27 서울, 대전, 광주, 충청, 전라지역 56개 기관에 피자 총 594판 배달
- 5. 04 '미스터 피자' 로부터 1차 쿠폰 총3,703장 236개 공부방 발송
- 6. 26 추가선정기관(20개 기관) 중 8개 기관에 피자 총 81판 배달
- 7. 10 미스터 피자 로부터 추가기관 피자쿠폰 총 165장 16개 공부방 발송

〈공부방 교사 사전캠프 (5차)〉

- 6.19~22 장소 : 청태산 숲체원
- 참여인원 : 총 32명

〈빈곤지역 아동 연합캠프(5차)〉

- 6. 19 약정서 체결 및 기금증서 전달식
- 7. 19 9개 연합회에 1차 지원금(70%) 총 35,500,000원 송금

〈우리가 만드는 행복한 세상〉



5월21일 한국심리상담연구소에서 열린 7차 오리엔테이션.

'우리가 만드는 행복한 세상'은 청소년의 자아성장 훈련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이 스스로의 욕구를 탐색하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훈련으로 한국심리상담연구소(소장 김인자)의 전문상담사가 직접 공부방을 방문하여 이루어진다. 2007년 상반기 제7차 '우리가 만드는 행복한 세상'에는 12개 기관 13개 팀, 120명의 어린이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사랑의 친구들'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기금 마련을 위해 1년에 두차례

하우스 투어를 열어 기금을 모으고 있다.

6차 : 15개 기관 참여 / 2006년 11월 ~ 2007년 1월

구룡바오공부방(강남 개포), 모덕지역아동센터(부산 사상), 봉산지역아동센터(전남 담양), 성남우리공부방, 지역아동센터(경기 성남), 비전교실(서울 관악), 신승지역아동센터(충북 청원), 신원지역아동센터(광주 북구), 안산시지역아동센터, 스스로함께(경기 안산), 오창지역아동센터(충북 청원), 월곡공부방(서울 성북), 조이스터디지역아동센터(서울 정동), 지역아동센터, 아름드리청소년공부방(전주), 참신나는학교(서울 종로), 큰꿈지역아동센터(광주 북구), 한마음지역아동센터(경기 포천)

7차 : 12개 기관 참여 / 5월 ~ 7월

성남우리공부방지역아동센터(경기 성남), 가산종합사회복지관(서울 금천), 꿈나무지역아동복지센터(경기 부천), 늘푸른청소년세상(경기 군포), 사당송실지역아동센터(서울 동작), 새날지역아동센터(광진구), 지역아동센터 셀라신나는집(경남 김해), 장유지역아동센터(김해 장유), 지역아동센터 안민희망동지(경기 안양), 친구아동센터(경기 성남), 행복한지역아동센터(서울 화곡)

〈지방 공부방 어린이 서울초청 행사(8차)〉

- 4.25~27 초청행사 개최
- 일시 : 4월 25일 ~ 27일
- 참석인원 : 86명 (교사 10명, 아동 76명)
- 참석기관 : 제천-늘푸른지역아동센터, 사랑의 교실
- 강원-원대리공부방, 흥해라공부방, 에벤에셀공부방
- 5. 4 나라사랑 어머니회 로부터 후원금 5,000달러 수령

〈House Tour(3차)〉

- 4. 14 'House Tour(3차)' 30명 참석



자신의 삶을 공개한 디자이너 서정기씨가 참가자들에게 내부 인테리어를 설명하고 있다.

'사랑의 친구들'이 펼치고 있는 청소년 성장훈련 프로그램 '우리가 만드는 행복한 세상'의 기금마련을 위한 하우스 투어가 4월 14일 열렸다. 이날 하우스 투어에는 주한 이탈리아대사관 Pedrocchi 무관 자택, 패션 디자이너 서정기 씨의 남산 샵, 미국인 크리스틴 켈러 씨의 자택, 주한 노르웨이 Tonseth대사 관저, 박희양 씨의 한옥이 참가자들에게 공개됐다.

하우스 투어는 기금마련 취지에 찬성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4차 투어는 10월 13일 열릴 계획이다. 참가비는 1인당 12만원이다.

〈뉴욕생명과 함께 하는 영어마을 캠프〉



캠프에 참여한 101명의 어린이들.

뉴욕생명에서 공부방 어린이 100명을 영어마을캠프에 초대했다.

- 일시 : 6월 16일~17일
- 장소 : 수유 영어마을 캠프
- 참여인원 : 101명
- 서울-분도공부방, 조이스터디지역아동센터, 한누리지역아동센터
- 성남-성남우리공부방지역아동센터
- 부천-도담지역아동센터
- 안산-팔곡늘푸른지역아동센터
- 충주-충주지역아동센터, 행복을꿈꾸는지역아동센터

〈외환은행과 함께하는 2007 나눔재단 콘서트〉

- 일시 : 5월 29일
- 장소 :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 참여인원 : 31명
- 참석기관 : 친구공부방, 성남꿈나무학교, 조이스터디지역아동센터

〈기타〉

- 1. 22 삼진GDF가 모자, 장갑 세트 880개(900만원 상당)를 기증해 소외지역 어린이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기관과 함께 나누다.
- 2. 12 여성신문사로부터 초중등 학습교재 1,174권(700만원 상당)을 기증받아 9개 공부방 어린이들에게 지원하다.
- 2. 12 한국일보에서 책장 7개, 의자 9개, 책상 2개를 기증했다.
- 4. 16 한국녹색문화재단이 청정원으로부터 기증받은 지원물품 25박스(400만원 상당)를 '사랑의 친구들'에 기부했다. 지원물품은 식용유를 비롯해 햄과 간장, 카레 등 식료품으로 17개 공부방에 이 물품을 전달했다.
- 6. 4 개인후원자 김 그레이시 씨가 20kg들이 쌀 등 7포대와 라면 4상자를 기증했다. 이 물품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공부방에 전달할 예정이다.